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41호(98/5/18)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5.18 18주년, '광주'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다 숨져간 이들은  
잊혀져 가고 있다.

<요즘 인권운동사랑방은...>

## 새로운 실험 가운데 싹트는 고민들

비좁은 사무실이 요즘처럼 비좁게 느껴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책상이 모자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일을 보는 자원봉사자들, 손민영 씨처럼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빌려 쓰는 사람들, 학생들의 모임, 각종 회의가 매일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쉴새없이 울려댁니다. 모임이 끝나면 술판도 벌어집니다. 아예 늦게까지 일하다 사무실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들도 많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으니까 교육실장은 한때 아예 밤에 나와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 술 그득히 밥을 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랑방은 요즘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

사업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방이 추진하거나 욕심내는 일은 많기도 합니다. 행정, 청송보호감호소, 국가보안법, 안기부, 보안관찰법, 불심검문, 적준, 한국타이어, 인권영화제 등등에다 일상적으로 하는 인권하루소식, 정보자료실, 인권교육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우리와 같은 작은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사업이 초기지만, 이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 낼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만약 상근자 6명으로 이 일들을 모두 하려고 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려는 양질(良質)의 자원봉사자가 대거 합류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일

들을 별무리없이 진행해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5층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5층에는 지금의 회의실보다 조금 큰 방 하나와 또 그 반만한 방이 하나 있고, 제법 넓은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건물이 비가 새는 관계로 보수공사를 하여 그곳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구청에서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갔습니다. 이런 일로 5월 10일께부터 5층을 활용하려던 계획은 다시 연기되어서 지금껏 5층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무실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어 5월 25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공사를 하고 가건물을 포함하여 5층까지 사용할 작정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사무공간의 일부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5일 이전 5층 입주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사랑방은 지금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자꾸 자라납니다. 자원봉사자들 중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점과 이들을 받아들일 때의 활동비와 자꾸 상승하는 사업비 등의 재정확보 문제, 인권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것, 인권이론에 대한 연구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토론도 진행했지만, 아직은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건 인권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고민은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

# 사 / 업 / 보 / 고

(98년 4월 셋째주부터 5월 둘째주까지)

\*\*\*\*\*

## 아시아인권헌장선언대회 17일 종료 국내 인권단체 거의 외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인권헌장선언대회에 사랑방에서는 7명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이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을 찾고, 국제회의 분위기를 익히며, 아시아 각 국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가를 듣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14일 리셉션 때부터 참가하였고, 서준식 대표는 15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무국의 류은숙, 최은아씨, 자원봉사자 이주영, 박의영, 이영태씨 등은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면서 회의 내용도 모니터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외에 천주교인권위원회, 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광주 인권지기 등의 인권단체에서 실무자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3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참가하였지만, 함량 면에서 매우 부족한 회의였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선 많은 내용이 다뤄졌지만, 준비 부족으로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인권대회라는 성격에 걸맞지 않게 외형적으로 지나치게 화려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외면에 대해 외국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편, 광주에 참가하였던 이들중 동티모르

지원센터의 마리아 페더리, 서니 인바라즈씨는 18일 서울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민주화와 폭력진압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이후 사랑방 사무실에 들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분단, 필리핀의 로물러 씨도 19일 사무실에 들러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 '안기부개혁연대회의' 참가

전국연합의 제안으로 안기부 개혁을 위한 연대사업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전국연합은 내부에 안기부 전담반을 설치하고, 전화도 가설하기로 하는 등 안기부 개혁 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과 김형찬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함께 결합하여 (가칭) 안기부개혁연대회의(안개연)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책위원회처럼 형식적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안개연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나 발족식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안기부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모임 같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개연에서는 안기부 스티커 떼기, 사찰요원 명단 공개, 지하 수사실 모형과 고문도구 공개 등의 사업과 그동안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사건들, 특히 간첩조작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는 오는 6월 10일경 안기부 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사랑방은 김삼석씨를 담당자로 결합시키고, 기획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불심검문 캠페인 재가동 요청돼

경찰의 방어적 태도, 주춤한 상태

경찰의 불법검문을 시정하기 위해 전개하였던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이 5월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캠페인이 시작된 4월 중순 이후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경찰력을 철수하고, 집회장 주위에서도 불심검문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5월에 가지려던 사회단체 연대 입장표명(또는 경찰청장 공개질의서)과 12일경 가지려던 토론회를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노동절 폭력시위를 문제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측의 강경방침에 따라 다시 불법검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집회에서는 경찰이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곳곳에서 검문을 했고, 심지어는 단성사에서 종묘공원에 이르는 길에서는 학생은 무조건 돌아가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팀은 이날 경찰의 불법검문에 맞서서 감시단 활동을 종묘공원 곳곳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통행을 차단하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이창조 기자와 성공회대 인권모임의 한 학생이 경찰에 끌려가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캠페인팀은 대학가의 대동제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역과 터미널 주변, 주말 집회장 주변 등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 경찰에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유보되었던 토론회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가보안법 사업도 시동

국가보안법 사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식인연대의 젊은 사람 팀과는 자료수

집 등의 사업을, 직장인 인권모임 틈새와는 교재연구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는 5월 28일 첫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같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기초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한 안기부 사업도 크게는 국가보안법 사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인권교재 초안 완료 검토, 감수 착수

이어 어린이용 인권교재 추진

인권교육실이 드디어 청소년 인권교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가제) 『인권을 호출하고 싶다』는 총 A4 용지 50쪽 분량으로 서문/ 1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2부 인권의 역사/ 3부 인권의 내용/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5부 인권 지킴이의 순서로 집필되었으며, 교재 초안은 본문 내용과 더불어 읽을 거리, 게임 등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표와 그림, 사진 등을 넣어 7월말까지 편집을 완료하고 출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 감수위원을 선정하여 감수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인권교육실은 이 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용으로 50쪽 내외의 핸드북을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청송보호감호소 피해자 증언 간담회

5월 7일 오전 10시, 시사저널, 한겨레21, mbc PD수첩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4회에 걸쳐 윤치고 씨를 비롯한 3-4명의 청송 출신들의 증언을 듣고, 이를 녹취하였던 과정을 거쳐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랑방은 청송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 의견서를 토대로 청송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 대한 설문 조사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회수가 약 130부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심수 60%, 일반수 40%). 지금 현재 뿌려진 설문지를 계속 회수하러 다니고, 변호사 등을 통해 출소자들을 소개받아 설문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문지 통계 작업과 이를 기초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안관찰법 워크샵 갖기로

보안관찰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서대표를 중심으로 장기수, 대학원생, 김삼석 씨 등이 결합하여 보안관찰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공개 워크샵을 6월말경 갖고, 보안관찰법 철폐를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김삼석 씨는 안기부 사업과 함께 보안관찰법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적준 폭력에 인권단체 공동 대처

철거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적준개발(현 다원환경)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대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제안으로 지난 7일 1차 간담회를 가졌고, 오는 22일(금) 오후 2시 가톨릭회관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워크샵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될 워크샵

에서는 신동우 주거연합 조직국장, 박문수 신부, 이덕우 변호사 등이 참가하여 철거폭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짚어보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노동인권유린 현장인 한국타이어 문제가 4월 25일의 노기연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사랑방은 한국타이어의 노동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노기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대강의 사업방향으로는 가장 잔인한 노동인권유린 사업장의 하나인 한국타이어 상황을 세상에 알려내고, 법적인 투쟁을 벌여내는 일, 국제연대를 통한 불매운동을 조직하는 등을 세우고 있고, 민변에 기획변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인사동, 5월 9일 MT 다녀와

최근 자원봉사자 모임은 모임 명칭을 '인사동'이라고 짓고, 지난 9일 경기도 고양 인근의 장흥에서 MT를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영태, 배경내, 성동철, 이주영, 박주희, 김연진, 유혜정 씨와 사무국의 이창조, 최은아 씨가 함께 한 MT에서 게임과 술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전야제를 새벽까지 벌였던 관계로 김밥 싸가는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인권협> 집행위원회

## 간사단체 천주교인권위 맡아

인권협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4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간사단체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소집하였습니다. 대표 단체는 민가협에서 아직 결정을 못내린 관계로 민가협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현재대로 김승훈 신부

님께서 인권협 상임대표를 맡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최근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리된 사건 자료를 갖고 법무부 교정국장을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법무부장관이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국회 인권포럼 등을 초청하여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해서는 5월 18일경 광주에 참가한 아시아 인권운동가 중 이 주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접촉하여 워크숍을 추진하고, 6월 앰네스티 방문단이 방문할 때 본격적인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사랑방 사무국에서도 국민인권기구와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기증, DB 프로그램 새로 짜

자원봉사자인 김광열, 김지수 씨등 향린교회 청년 교우들이 힘을 모아 586컴퓨터 한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컴퓨터는 자료실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두 분은 밤을 새워

가며 자료실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는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 서대표, 민변 토론회

오는 29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민변 1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에 '현재 우리나라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대표는 발제문 작성에 꽤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 □ 최은아 총무, 동성애자 토론회 참석

5월 8일 대학생동성애자인권운동연합이 주관한 동성애자 토론회에 최은아씨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성적소수자의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를 짚었습니다.

#### □ 사무실 집기를 도와주십시오 □

5층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집기와 사무용품이 절대 부족합니다. 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386급 이상), 책장, 캐비닛, 선풍기, 전화기 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도 대환영입니다. 연락바랍니다.

##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후원회원께 <쇼아>를 드립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인권영화제를 후원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후원회원에게는 제2회 인권영화제의 대표작 <쇼아>(9시간 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를 드립니다. 검열을 피하면서 <쇼아>를 보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특별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의 준비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 특별후원회원 가입 방법; 10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특별후원회원 특전

▷ 9시간 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 <쇼아>(Tape 4개) 증정/ ▷ <쇼아> 자료집 증정/ ▷ 일반후원회원과 동일한 특전(후원회원소식지 우송, 상영장 우선입장, 영화제 해설책자 및 기념품 증정)

3. 문의: 김정아(☎ 02-741-2407)

<자료-강용주 어머니 조순선씨의 호소문>

## “진정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내 아들 용주를 돌려주십시오!”

<편집자주> 이 호소문은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인권현장선언대회에서 강용주 씨의 어머님께서 낭독한 것입니다. 외국의 참가자들은 어머님의 호소에 다음날 한 끼 단식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로 응답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안동 교도소에서 전향제도의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주장하며 5월 20일까지 21일간 단식을 전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의 어머니 조순선입니다.

제 아들 강용주는 전남대 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올해 12년 8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는 제3세계 정치 연구를 위해 방북한 고등학교 선배에게 학생운동과 광주민주화 운동 자료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간첩죄가 적용받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고 안기부의 압력까지 겹쳐 변호사 도움이 전혀 없이 재판을 받은 용주는 86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93년 20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용주에게 간첩임을 인정하고 전향할 것을 끊임없이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용주는 자기는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으로 날조·조작된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더욱이 80년 5·18 당시 광주 동신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용주는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굴복해 전향하는 것은 광주항쟁 때 돌아가신 열사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광주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어서 전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악법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라는 평화적 불복종의 정신으로 양심을 지키고 전향제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 용주의 의지입니다.

단지 전향을 안한다는 이유 때문에 용주는 지난 대통령 취임 경축사면에서 감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향제도’ 철폐를 외치며 저 안동교도소에서 16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지어먹이고 싶은 비원을 안고 14년을 기다려온 안타까운 어미입니다. 하지만 빨갱이가 아닌 용주에게 간첩죄를 인정하라고, 전향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인간의 양심, 생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악법 국가보안법과 전향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 나이 일흔 둘, 늙어서 구호 외치기도 힘이 들지만 저는 용주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양심수’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신이 진정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내 아들 용주를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8년 4월 재정보고**  
(98년 4월 16일 - 5월 15일)

전기이월: +1,568원

수 입	지 출
회비 1,727,800	활동비 3,830,000
구독료 2,523,800	발송비 794,880
사업수익 559,296	사무비품비 438,040
후원금 30,000	사무실유지비 690,500
사업프로젝트 7,956,600	간행물구독료및자료구입 44,300
기타 103,206	식대및 부식비 583,650
	통신·전화비 825,630
	사무기기 98,700
	복사비 421,310
	행사비 675,400
	기타 215,200
<b>수입총액: 12,900,702원</b>	<b>지출총액: 8,617,610원</b>
<b>최종결산: +4,284,660원</b>	

<4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독일의 '재분배 재단'에 제출했던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져 독일에서 1만 마르크가 우선 도착되었습니다. 5천 마르크는 사업 보고서 제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큰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해주신 재독양심수후원회 이영숙씨께 감사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상근자들의 활동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